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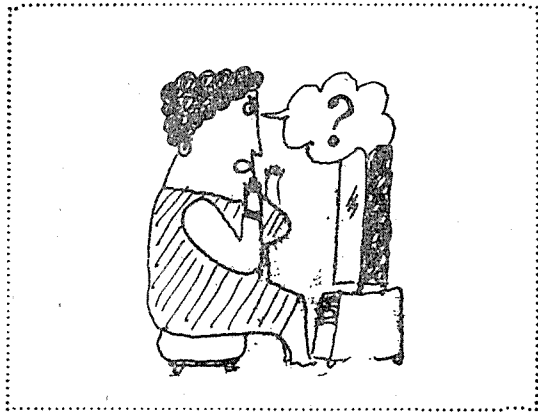
마담이 아침에 거울에서 발견한 것은 자기의 환논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어제 저녁 의사는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산장풍의 술집에는 조명이 밝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려고 거울을 쳐다

간단한 병인데도 명의가 몰랐다

산장풍의 술집에는 문화인들이 많이 모인다. 소박한 인테리들은 산장풍의 술집분위기에 젖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술집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이 집에는 부근에 있는 병원 내과과장도 젊은의사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날 술집마담이 몸이 고단하다고 하면서 식중독 비슷한 증상으로 열을 내고 드러 눕고 말았다. 며칠 지난뒤 마담이 몸을 풀고 술집에 나오니까 마침내과과장도 만날 수 있었다. 옆자리로 다가선 마담은 자기 병상을 이야기하니까 그 의사는 얼굴을 보고서는 알 수 없는데 내일 병원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본 마담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내과과장이 얼굴을 보고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몰랐단 말인가하고 의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마담은 자기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황달이 있는 피부색은 노란색을 띠는 건 빛을 띠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부터 낮이면 보통사람도 알 수 있어도 밤이면 명의라도 모르는 것이 황달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낼때 산장풍의 술집이라는 곳에 함정을 파둔 것이다.

이 마담의 황달은 유행성간염인듯 하다. 이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생기나 처음에는 감기나 식중독증상과 같은 수가 많다.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2~3일이 지나면 열이 내리나 뒤이어 토기(吐氣)가 있다가 황달이 된다. 마담은 열이 내려 가니까 회복될 줄 알고 술집으로 나왔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그때 황달이 시작된 것이다. 황달은 피부보다 흰눈에 많이 나타나는데 밝은 낮에 보지 않으면 전문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유동식을 먹으면 이는 아프지 않은가

우주광(宇宙狂)인 미테파 A군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다. 아플로부터의 텔레비전중계를 통하여 비행사가 칫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칫솔은 입안을 소제하는 도구다. 음식을 먹고 난뒤 음식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충치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주선에서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못마땅하단 말이다. 우주선에서는 우주식(宇宙食)을 모두 유동식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물로 입을 씻어버리면 따로 음식찌꺼기가 남을 수가 없다. 만일 물로 찌꺼기를 씻어 내는 것이 부족하면 충치예방약을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만일 A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주선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유동식으로 키운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齒牙)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장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은 모두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齒牙)만을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개에게 유동식을 계속하여 먹인 실험예가 있다. 이 실험에서 잇몸 근육이 물러져 저작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다. 인간에게 실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할 수 있다면 잇몸근육은 물론 이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도 약해져서 결

이를 빼고 말아야 한다.

예를들어 매우 심한 충치가 있어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태를 오래동안 계속한다면 잇몸 근육이 줄어들고 치조골이 위축되고 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또 충치가 하나도 없는 건강한 치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빨리 먹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잘 씹지 않아 치조가 흔들릴 위험이 많다.

결국 치아는 음식을 끊고 갈아서 씹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씹는 작용을 계속해야 오래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아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씹는 기능에 참여하고 있는 잇몸이나 치조골은 약해지고 말 것이다.

결국 유동식만으로 아기를 키운다면 치아는 씹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뽑아 버리고 말아야 할 것이며 마침내 퇴화기관(退化器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충치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